

배포일시	2010. 7. 5(월) 15:00 (총 11매)	보도시점	즉 시
담당부서	부산지방기상청 기후과	담당자	과장 조진대
		전화번호	051-718-0423

지난 달(6월) 평균최고기온 73년 이후 최고 기록
- 부산·울산·경남지방의 '10년 6월 기상분석 결과 -

□ **6월의 기온(부산·울산·경남지방)**

- 부산·울산·경남지방의 6월 평균최고기온(28.0℃)이 1973년 이래 최고를 기록(2위 27.9℃, 2005년)
- 6월 평균최고기온을 순별로 보면 상순 27.9℃, 중순 28.4℃, 하순 27.8℃를 기록함.
- 상순은 맑은 날이 많고, 일교차가 커 73년 이후 최고기온은 4위, 최저기온은 5위를 기록하였음.
- 이와 같은 원인은 동서고압대의 영향을 주로 받고, 장마전선의 북상이 다소 늦어졌기 때문임.

□ **6월의 강수량(부산·울산·경남지방)**

- 6월 한달 간 강수량으로는 적은 편이었음.
- 6월 한달 간 강수량이 61.7mm로 평년(211.7mm)에 비해 150mm가 적어 1973년 이후 세 번째로 적었음.(평년대비 29.1%)
- 순별로는 상순 2.3mm(평년 62.5mm), 중순 7.3mm(평년 57.0mm), 하순 52.2mm(평년 92.9mm)로 중순까지 비가 적었고, 하순에 장마전선이 북상하여 경남지방에 12.9~97.0mm의 강수를 기록함.

※[첨부] 6월의 기상분석 자료

' 10년 6월 기상특성

부산지방기상청
2010년 7월 5일 발표

□ 6월의 기온 특징

○ 1973년 이래 6월 평균최고기온 가장 높아

- 전반적으로 고압대의 영향을 많이 받아, 평균최고기온이 28.0℃(평년 26.1℃), 평균기온이 22.3℃(평년 21.1℃)로 1973년 이래 각각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높았음.
- 부산의 경우 평균최저기온은 19.4℃(평년 17.7℃), 평균기온은 22.0℃(평년 20.5℃)로 1904년 관측 이래 각각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높았음.
- 상순은 동서 고압대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아 내륙 지방 중심으로 큰 일교차를 보였으며, 평균최고기온은 27.9℃(평년 25.6℃)로 1973년 이래 네 번째로 높았고, 평균최저기온은 14.2℃(평년 15.1℃)로 1973년 이래 다섯 번째로 낮았음.
- 부산의 경우 평균기온은 20.9℃(평년 19.7℃)로 1904년 관측 이래 세 번째로 높았음.
- 중순은 고기압 가장자리의 영향을 자주 받아, 평균기온이 23.2℃(평년 21.2℃)로 1973년 이래 가장 높았으며, 최저기온은 19℃(평년 16.8℃), 최고기온은 28.4℃(평년 26.4℃)로 1973년 이래 각각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높았음.
- 부산의 경우 최저기온은 20.2℃(평년 17.7℃)로 1904년 관측 이래 가장 높았으며, 평균기온은 22.7℃(평년 20.6℃)로 1904년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높았음.

※ 부산·울산·경남 6월 평균최고기온(℃) 극값 순위

최고기온 최고순위	지역	1위	2위	3위	4위	5위
1973년 이후	부산 경남	28.0 ℃ 2010년	27.9 ℃ 2005년	27.9 ℃ 1997년	27.6 ℃ 2004년	27.3 ℃ 2009년

※ 부산 6월 평균최저기온(℃) 극값 순위

최저기온 최고순위	지역	1위	2위	3위	4위	5위
1904년 이후	부산	19.4 ℃ 2010년	19.0 ℃ 1997년	18.9 ℃ 1991년	18.8 ℃ 2001년	18.7 ℃ 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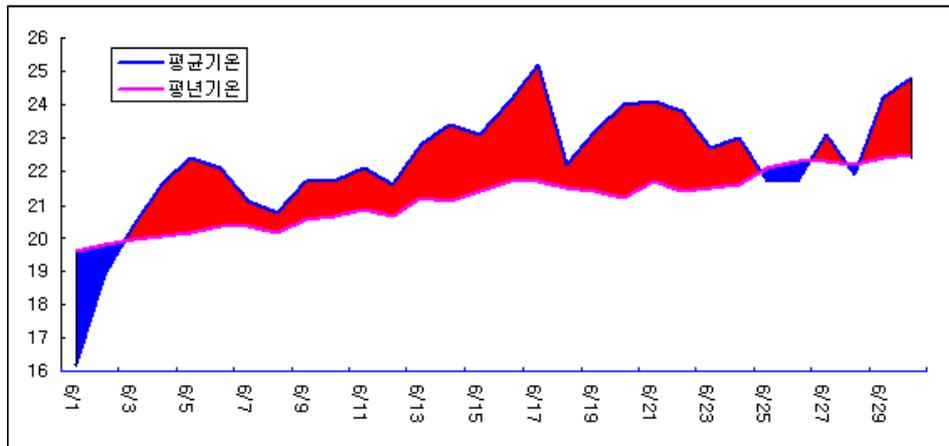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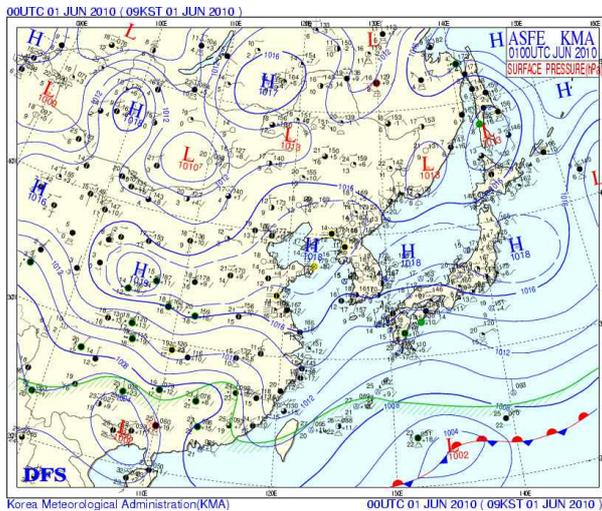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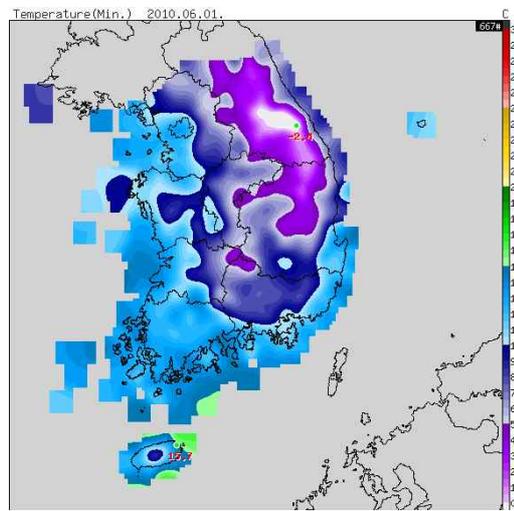


그림 1. 2010년 6월 부산·울산·경남 평균기온 일변화(°C)

○ 6월 1일 최저기온 6월 극값 기록 경신



2010. 6. 1. 09시 지상일기도



2010. 6. 1. 일최저기온 분포

— 2010년 6월 1일 우리나라는 동서고압대의 영향을 받으면서 강한 복사냉각 현상으로 기온이 많이 하강하여 마산, 진주, 통영은 일최저기온 6월 극값 1위를 기록하기도 하였음(대관령 -1.7°C).

※ 2010. 6. 1. 최저기온(°C) 극값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날짜	값								
마산	2010.06.01	10.9	1998.06.07	12.0	1992.06.08	12.2	1989.06.12	13.4	1989.06.11	13.9
통영	2004.06.01	11.4	1992.06.08	11.6	2010.06.01	11.7	1981.06.02	11.7	1998.06.07	11.9
진주	2010.06.01	8.0	1992.06.08	8.1	1970.06.02	8.1	1981.06.01	8.8	2001.06.01	8.9
거창	1992.06.08	4.8	1978.06.01	5.9	2010.06.01	6.1	1981.06.02	6.6	1981.06.01	6.7
합천	1992.06.08	6.8	1998.06.07	7.5	2010.06.01	7.7	2009.06.01	8.5	1983.06.07	8.6
산청	2010.06.01	8.3	1981.06.01	8.5	1983.06.07	8.6	1978.06.01	8.8	1997.06.03	9.0
거제	1981.06.02	8.2	1978.06.01	8.8	1985.06.06	9.1	1998.06.07	9.4	2010.06.01	9.5

□ 6월의 강수량, 강수일수 특징

○ 강수량 1973년 이후 세 번째로 적어

- 총 강수량은 61.7mm로 평년(211.7mm)대비 29.1%로 1973년 이후 세 번째로 적었음.
- 상순 강수량은 2.3mm로 평년(62.5mm)대비 3.7%로 매우 적어 1973년 이후 다섯 번째로 적었고, 강수일수는 0.7일(평년 3일)로 1973년 이후 세 번째로 적었음.
- 부산의 경우 강수가 없었음(2003년 이후 처음)
- 중순에는 대기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내려 강수일수가 4.2일(평년 2.9일, 1973년 이후 다섯 번째로 많음)이었으나, 강수량은 7.3mm로 평년(57.0mm)의 12.8%로 적었음.
- 하순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52.2mm의 강수가 있었으나 평년(92.9mm) 대비 56.2%로 적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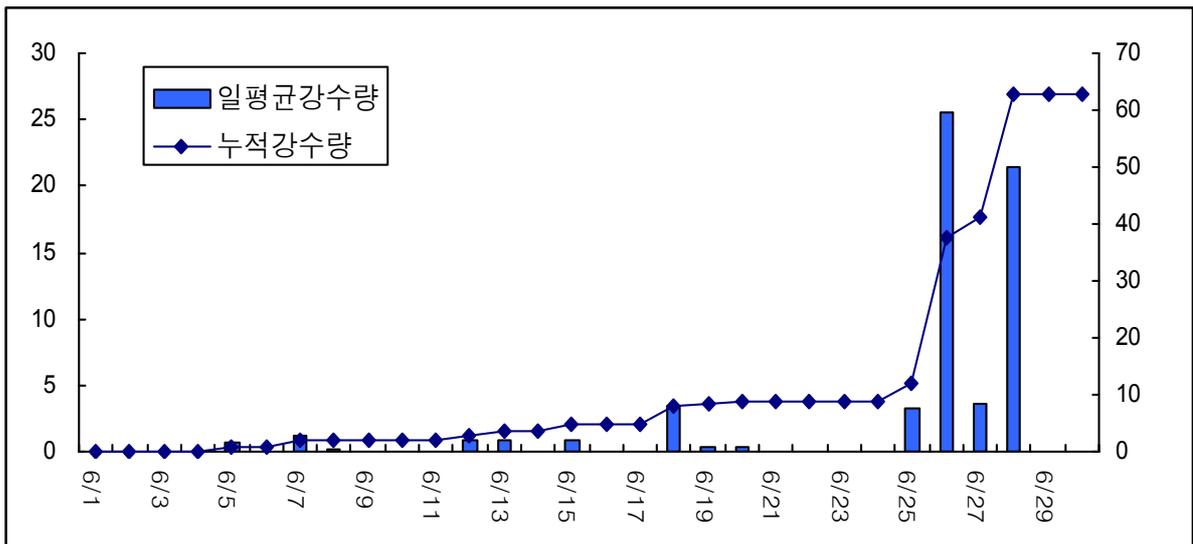


그림 2. 2010년 6월 부산·울산·경남 강수량 일변화(mm)

□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적었던 원인

- 중국으로부터 이동해 온 건조한 성질의 이동성 고기압이 우리나라 주변에서 동서고압대를 형성하면서 강한 일사의 영향으로 지면을 가열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맑고 건조한 날이 많았음 (그림 3).
- 특히 낮 동안 강한 일사에 의해 지표가 급격히 가열되면서 최고 기온이 30℃가 넘는 고온 현상이 자주 발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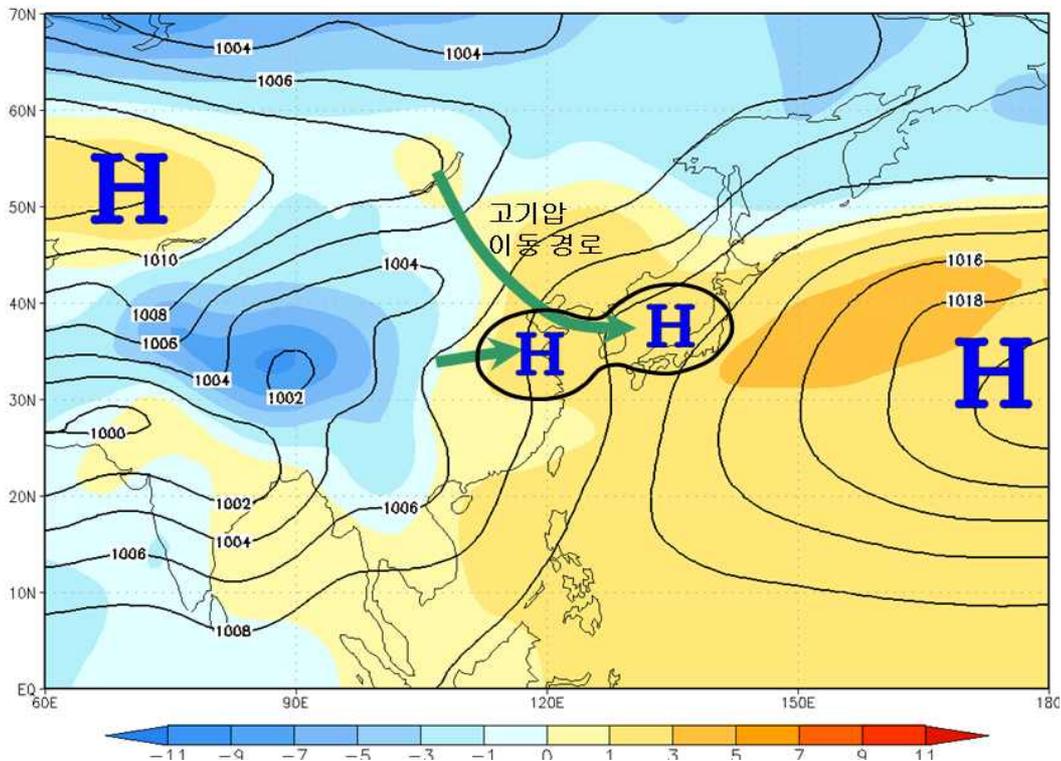


그림 3. 6월 평균 해면기압(실선) 및 해면기압편차(음영, 붉은색계열: 고기압 강화/저기압 약화, 파란색:저기압강화/고기압약화)

- 장마전선이 주로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함에 따라 수증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것이 차단되어 비가 적게 내렸음(그림 4).
-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에 비해 남서쪽으로 발달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하지 못하였음.
- 태풍 발생지역에는 고기압에 의한 하강 기류로 인해 태풍의 발생을 억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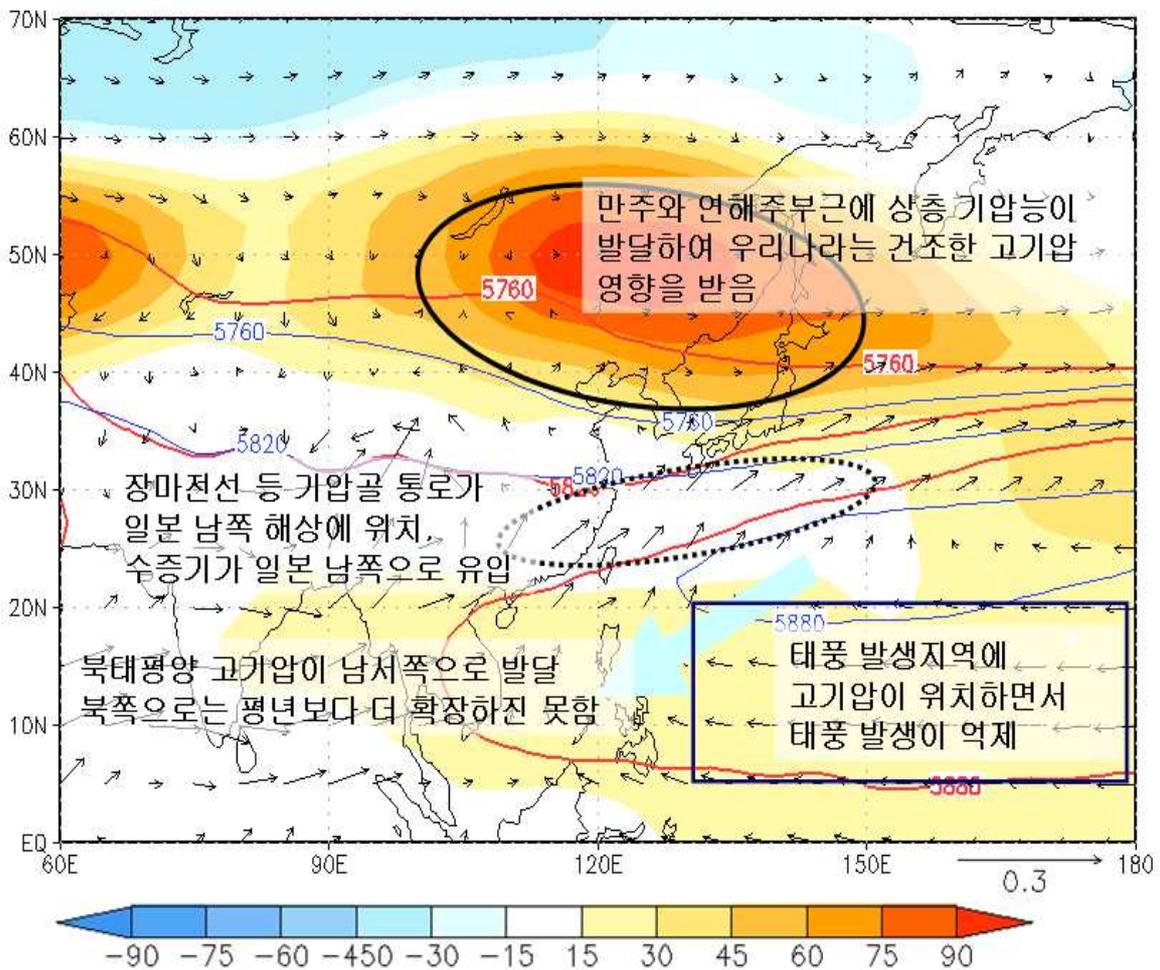


그림 4. 6월 평균 상층 500hPa 고도장(빨강:2010년,파랑:평년, 편차:음영)과 수분속(검정색)

□ 6월의 기상재해 현황

○ 해양 사고

사고 개요	언론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 : 2010. 6. 30. 01:47 - 장소 : 통영시 육지도 남동24마일 - 내용 : 모래운반선과 화물선 충돌 - 피해 : 모래운반선 좌현 파공 - 원인 : 해상 안개로 인한 선박 충돌 	<p>통영 앞바다서 선박 충돌로 화물선 침몰...선원 10명 구조</p> <p><small>NEWSIS 기사입력 2010-06-30 06:10</small></p> <p>【통영=뉴스시스】최운홍 기자 = 30일 오전 1시47분께 경남 통영시 육지도 남동방 24마일 해상에서 부산선적 2339급 모래운반선과 파나마선적 1504급 화물선이 충돌했다.</p> <p>이 사고로 화물선이 침몰했으나 타고 있던 선원 10명은 출동한 해경 경비함정에 무사히 구조됐다.</p> <p>모래운반선도 좌현선수에 구멍이 뚫렸으나 인명피해는 없이 무사히 이동했다.</p> <p>해경은 경비함정과 방제선을 동원해 침몰선박 연료탱크의 기름유출에 대비하는 한편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p> <p><small>yong4758@newsis.com</small></p>

○ 기상 관련 기사

6월초에 얼음 얼었다

진주 8도 관측 이래 최저기온 대관령 영하 1.7도 서리내려

권혁범 기자 sear@hooqje.co.kr

6월의 시작과 함께 곳곳에서 역대 최저기온 기록이 깨졌다.

부산기상청은 1일 경남 진주와 마산의 아침 최저기온이 각 8.0도와 10.0도까지 떨어져 기상 관측 이래 최저값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거창(6.1도)과 통영(11.7도)은 역대 3위

를 기록했다. 부산은 12.4도, 울산은 12.0도로 꼴꼴했다. 특히 이날 대관령에는 복사냉각이 더해져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급강하,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이는 기현상도 벌어졌다. 6월에 남한에서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거나 물이 얼어붙은 것은 공식 관측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기상청은 지난날 하순 오호츠크해 상공에 비정상적 기압능이 발달, 우리나라 부근에 머무르면서 따뜻한 공기의 유입이 차단돼 이상저온이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열흘(5월 21~30일)간 부산 울산 경남 평균기온은 16.9도로 평년보다 1.9도 낮았으며,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낮은 분포를 보였다. 같은 기간 부산의 평균기온은 16.8도로 평년(18.5도)보다 1.7도 낮았다.

김연태 부산기상청 예보관은 "6·2 지방선거일이 2일부터는 기온이 상승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겠다"며 "지난 겨울 이후 이상저온과 일조시간 부족이 계속되고 있으니 농작물 피해 예방과 건강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밝혔다.

2010. 6. 2. 국제신문

주말·휴일 빗길 교통사망사고 잇따라

길 건너던 30대 택시 차여 사망 트레일러 충돌·추락, 2명 숨겨

윤정훈 조인특기자 sehan@hooqje.co.kr

장맛비가 내린 주말과 휴일, 부산에서 빗길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랐다.

27일 새벽 1시40분께 부산 사상구 영곡동 남태평양호텔 맞은편에서 호텔 쪽으로 길을 건너던 번호(34)씨가 사하구 하단동 방면으로 달리던 영업을 택시(운전자, 최모·31)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은 빈 차가 담배를 사러 가려고 도로를 건너다 사고가 났다는 목격자 진술에 따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6일 오후 1시25분께는 부산 동구 북천대이나 4부두 5층방정에서 빈 컨테이너를 싣고 김만부 두 배후도로 쪽으로 이동하던 트레일러가 기드레일을 돌고 바다로 추락했다. 부산해경은 사고 즉시 출동해 구조선으로 트레일러 운전자 양모(49) 씨를 구조했으나, 양씨는 이미 머리에 큰 상처를 입고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사고 현장 10여 m 앞에 있는 가로등이 심하게 휘어진 점 등으로 미뤄, 양씨가 가로등을 들이받은 뒤 관리부 의식을 잃어 트레일러를 제동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바다에 빠졌던 트레일러는 27일 오후 1시40분께 인양됐다.

같은 날 오전 5시30분께는 부산 동서고기도로 진양랜드 인근에서 김해 방향 방면으로 진행하던 트레일러가 도로 옆 방음벽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사고와 함께 운전자 박씨는 목숨을 잃었으며, 동서고기도로 주변으로 2시간가량 차량정체가 빚어졌다.

경찰은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지난 26일 오전 부산 동서고기도로 진양랜드 인근에서 김해방향 방면으로 달리던 대형 트레일러가 방음벽을 들이받고 추락하게 일그러져 있다. 박수현 기자

2010. 6. 28. 국제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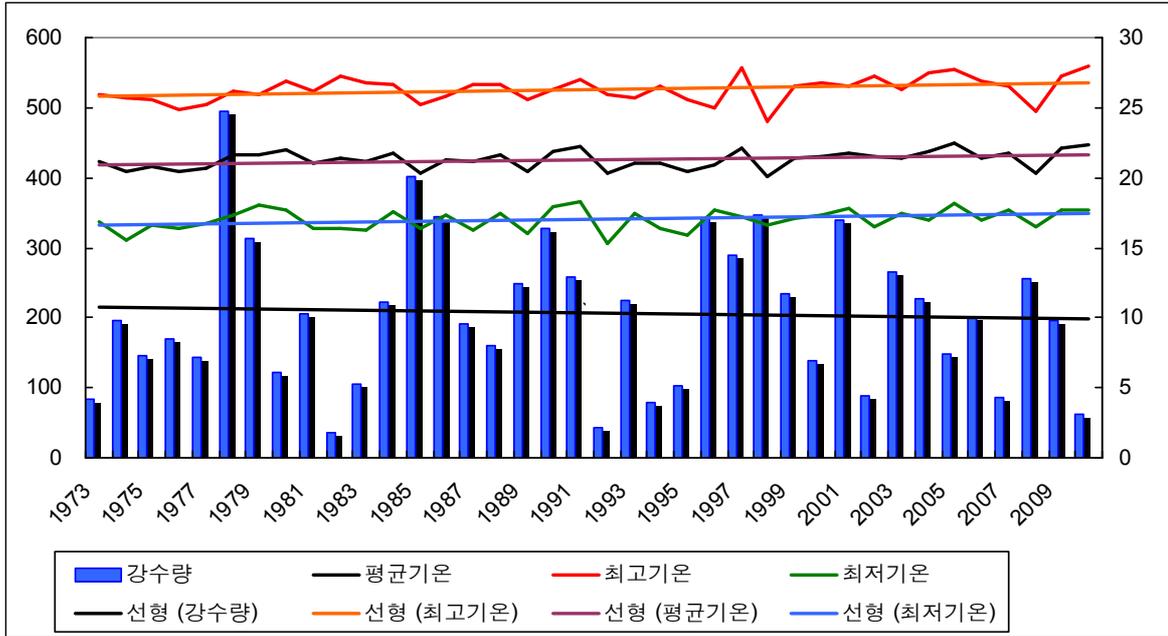
□ 향후 전망

- 7월 중순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고온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겠으며,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음. 기압골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올 때가 있겠으나,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 7월 하순에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은 후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음.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지역 차가 크겠음.
- 8월 상순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무더운 날이 많겠으며,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음.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대기 불안정에 의해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음.

부산울산경남	평균 기 온	강 수 량
7월 중순	평년(24~25℃)보다 높겠음	평년(67~111mm)과 비슷하겠음
7월 하순	평년(25~26℃)보다 높겠음	평년(67~135mm)과 비슷하겠음
8월 상순	평년(25~27℃)보다 높겠음	평년(54~94mm)과 비슷하겠음

- ※ [붙임1] 부산·울산·경남지방의 6월 기상자료
- [붙임2] 부산의 6월 기상자료

□ 평균기온, 평균 최고기온, 평균 최저기온, 평균 강수량(1973-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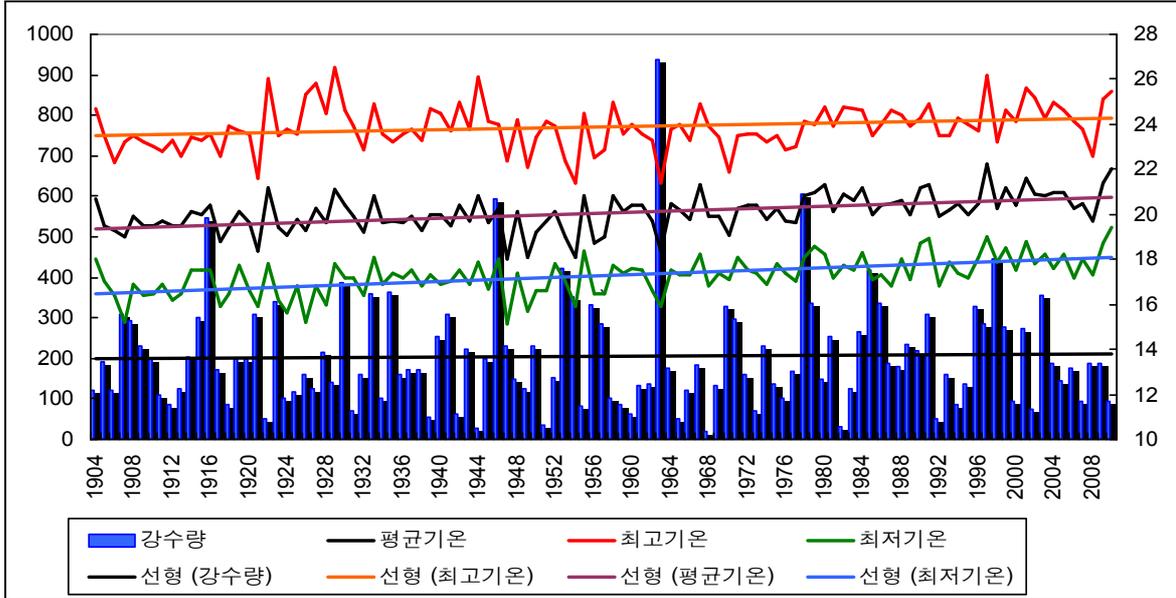
□ 평년대비 기상요소 값

요소(부산·울산·경남)	2010년 (a)	평년값 (1971-2000) (b)	a-b	1973년 이후 순위(5위까지만)
평균기온(°C)	22.3	21.1	1.2	최고 2위
평균 최고기온(°C)	28.0	26.1	1.9	최고 1위
평균 최저기온(°C)	17.6	16.8	0.8	-
강수량(mm)	61.7	211.7	-150.0(29.1%)	최저 3위
강수일수(일)	8.9	10.8	-1.9	-
일조시간(hr)	198.4	189.9	8.5(104.5%)	-
황사일수(일)	0	0	0	-

□ 연대별 기상요소 값

연도	평균 기온 (°C)	평균 최고기온 (°C)	평균 최저기온 (°C)	강수량 (mm)	강수일수 (일)	일조시간 (hr)	황사일수 (일)
1973-1980년(a)	21.1	25.8	16.9	208.4	11.9	201.7	0
1981-1990년(b)	21.2	26.3	16.7	222.7	9.9	199.5	0
1991-2000년(c)	21.1	26.1	16.8	205.1	10.6	170.4	0
2001-2010년(d)	21.7	26.9	17.3	185.6	9.6	184.2	0
d-a	0.6	1.1	0.4	-22.8	-2.3	-17.5	0
d-b	0.5	0.6	0.6	-37.1	-0.3	-15.3	0
d-c	0.6	0.8	0.5	-19.5	-1.0	13.8	0

□ 평균기온, 평균 최고기온, 평균 최저기온, 평균 강수량(1904-2010년)



□ 평년대비 기상요소 값

요소(부산)	2010년 (a)	평년대비 (1971-2000) (b)	a-b	1904년 이후 순위(5위 까지만)
평균기온(°C)	22.0	20.5	1.5	최고 2위
평균 최고기온(°C)	25.5	24.0	1.5	-
평균 최저기온(°C)	19.4	17.7	1.7	최고 1위
강수량(mm)	94.4	222.5	-128.1(42.4%)	-
강수일수(일)	8.0	11.2	-3.2	-
일조시간(hr)	201.3	173.7	27.6(115.9%)	-
황사일수(일)	0	0	0	-

□ 연대별 기상요소 값

연도	평균 기온 (°C)	평균 최고기온 (°C)	평균 최저기온 (°C)	강수 량 (mm)	강수일수 (일)	일조시간 (hr)	황사일수 (일)
1904-1910	19.6	23.3	16.6	209.2	11.3	212.2	0
1911-1920년	19.7	23.3	16.9	202.5	13.6	168.8	0
1921-1930년	19.9	24.5	16.5	193.9	9.8	220.8	0
1931-1940년(a)	19.8	23.8	17.2	187.2	10.6	226.6	0
1941-1950년	19.6	23.9	16.9	214.0	12.0	195.0	0
1954-1960년	19.7	23.4	17.1	191.3	10.8	166.9	0
1961-1970년	19.9	23.4	17.2	221.8	10.8	200.9	0
1971-1980년(b)	20.4	23.6	17.7	225.3	12.1	157.5	0
1981-1990년	20.6	24.3	17.6	224.9	10.0	189.9	0
1991-2000년	20.7	24.2	17.9	217.4	11.4	173.8	0
2001-2010년(c)	20.9	24.6	18.1	177.9	9.9	175.5	0
c-a	1.1	0.8	0.9	-9.3	-0.7	-51.1	0
c-b	0.5	1.0	0.4	-47.4	-2.2	18.0	0

<용어해설>

- '부산·울산·경남'의 의미는 10개 관측지점의 자료를 평균한 것임. 예를 들어 금년 6월의 강수량 61.7mm의 의미는 10개 지점의 6월 강수량을 모두 합하여 10으로 나눈 값임.
- 평년값은 1971년부터 2000년까지 30년 평균값임.
- 부산·울산·경남 평균은 관측지점 수가 급증하여 안정적으로 자료를 생산하기 시작한 1973년 이후 10개 지점을 평균한 것임.
 - － 1973년 이후를 비교한 이유는 현재 '부산·울산·경남' 평균하는 10개 지점의 관측시작 시기가 1973년 이후가 대다수이므로 1973년을 기준으로 하였음.
- 부산의 경우 1904년부터 분석 자료임.
- 일조시간과 황사일수는 유인관측소 자료임.

<연대 예시>

- 1970년대: 1971년부터 1980년까지를 의미
- 2000년대: 2001년부터 2010년까지를 의미